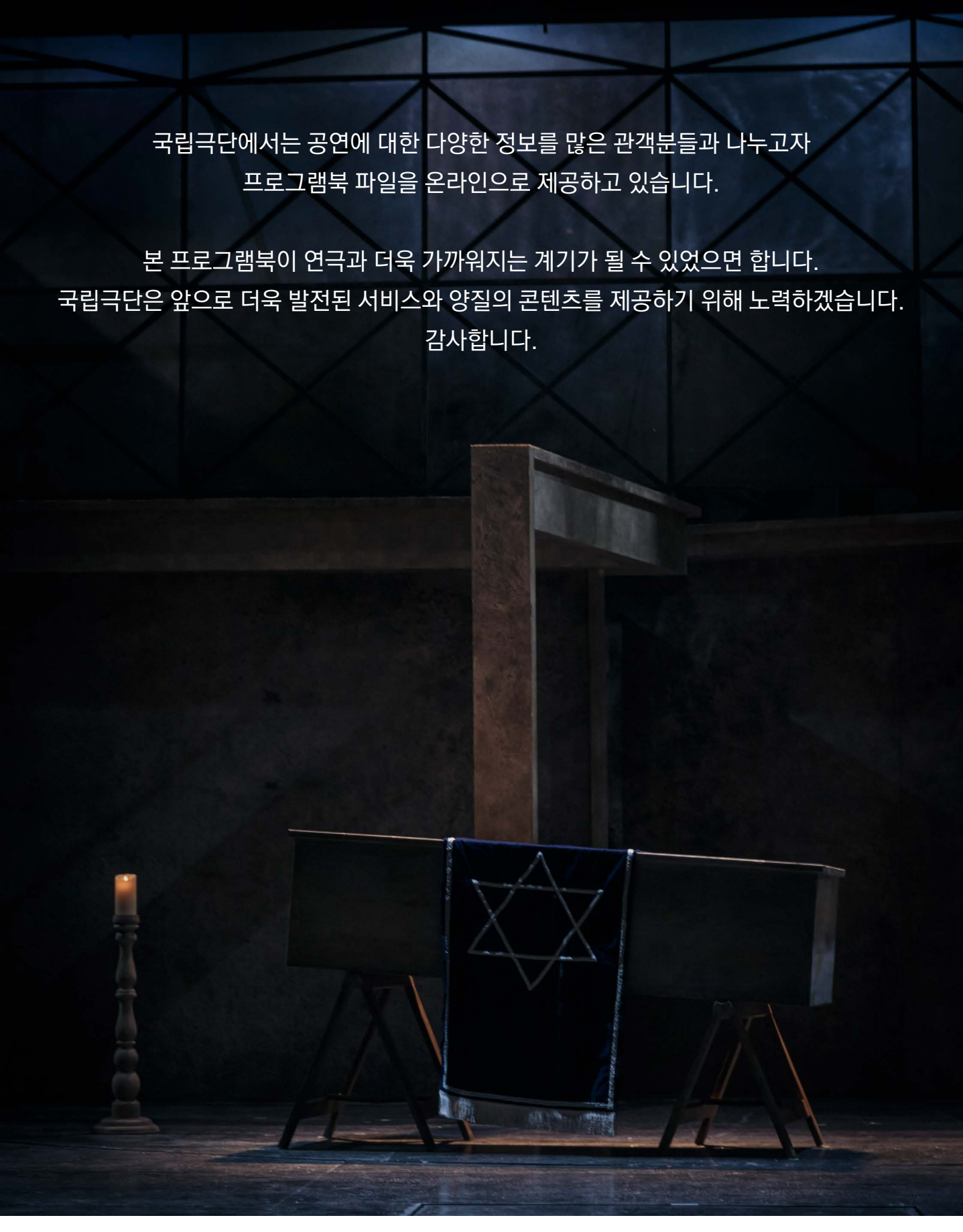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국립극단

ANGELS IN AMERICA was commissioned by and received its premiere
at the Eureka Theatre, San Francisco in May 1991

Also Produced by
Center Theatre Group/Mark Taper Forum of Los Angeles
Gordon Davidson, Artistic Director/Producer

Produced in New York at the Walter Kerr Theatre by
Jujamcyn Theatres, Mark Taper Forum with Margo Lion, Susan Quint Gallin,
Jon B. Platt, The Baruch-Frankel-Viertel Group and Frederick Zollo
in association with Herb Alpert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샌프란시스코 유레카씨어터의 지원으로 1991년 5월 초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센트럴 씨어터 그룹/마크 테이퍼 포럼,
뉴욕 월터 커 씨어터Walter Kerr Theatre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국립극단 엔젤스 인 아메리카–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일정 파트 원_2021년 11월 26일(금)–12월 26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연출가 인터뷰	**옛것과 겨루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다** ▪ 남궁경	2
줄거리		8
인물관계도		9
출연진		10
작품 이해돕기—1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 허순자	14
작품 이해돕기—2	**1980년대 미국, 에이즈 위기** ▪ 고강일	18
작품 이해돕기—3	**'토니 커쉬너'와 그의 작품세계** ▪ 윤정용	21
작품 이해돕기—4	**작품 속 키워드**	25
무대디자이너의 글	**외부로부터**	28
소품디자이너의 글	**천국과 우리의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30
연습 스케치		31
스태프 프로필		34
만드는 사람들		35

옛것과 겨루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다

신유청 연출가 인터뷰

진행·정리 남궁경 _____ 자유기고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공연 시간이 상당히 긴 작품으로, 파트 원과 투*로 나뉩니다. 이번에 우선 파트 원이 공연되고 내년 초에 투가 공연된다고 들었습니다. 독립된 두 부분으로 나뉜 하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얼핏 괴테의 『파우스트』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파우스트』의 경우에는 1부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결되는 느낌을 주는 면이 있거든요. 올해 초 공연된 국립극단의 〈파우스트 엔딩〉처럼 1부와 2부를 어느 정도 축약하고 각색해서 무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 작품은 그게 불가능한 내용과 형식을 지녔고, 이렇게 나누어 공연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보니 준비하시는 작업도 다른 작품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 같습니다.

▸▸ 파트 원은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 전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각각의 인물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상황이 밑밥으로 제시되다가 끝에 이르면 엄청난 일이 터지며 종결됩니다. 그렇게 던져진 사건들이 파트 투로 넘어가 수습되고 정리되기 때문에, 파트 원과 투를 독립적으로 연습한다는 것은 불가능 했어요. 인물들 각각이 향하는 지점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의 계획 아래에 의미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 마치 부분을 알아야 전체를,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잘 조직된 자연의 신비처럼 느껴지는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파트 원의 진도를 나가기에도 버거운 시간이지만, 내년에 공연될 파트 투를 읽어나가는 작업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파트 투 대본의 리딩만 해도 4시간이 소요되니 읽고 나면 매우 지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식의, 그런 작업 형태였어요. 하지만 파트 원과 투를 오가며 배우들이 내면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Millennium Approaches
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러시아어로 '개혁'을 의미)

신유청Shin U-chung

〈그을린 사랑〉 〈와이프〉 등 작품을 통해 전쟁, 소수자 등 동시대 묵직한 주제를 세밀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조명해왔다. 원작 텍스트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도 창의적이고 연극적인 표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백상예술대상, 동아연극상을 비롯해 연극계 굵직한 상에 이름을 올리며 지금 한국 연극계가 주목하는 연출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주요작품
2021 〈빈센트 리버〉
2020 〈궁극의 맛〉
2019 〈그을린 사랑〉 〈와이프〉 〈녹천에는 똥이 많다〉 〈언체인〉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2018 〈추ing_낯선자〉
외

수상내역
2020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백상연극상 〈그을린 사랑〉
제56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그을린 사랑〉 〈와이프〉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그을린 사랑〉
2019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녹천에는 똥이 많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그을린 사랑〉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보통의 작업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파트 원과 투를 합쳐서 8시간에 달하는 공연이잖아요? 원작자인 커쉬너가 원작을 축약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전하려는 이야기에 이토록 긴 시간이 필요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만 말이나 글로 설명되면 휘발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을 내리는 행위는 최대한 뒤로 미뤄야겠다 싶었어요. 그보다 우리 모두의 행동이 모여 체험되고 삶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답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 있어 그냥 일이 아닌 어떤 소명처럼 여겨지는데, 작품의 메시지를 오롯이 전할 수만 있다면 관객과 함께 하게 될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은 분명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와 8시간을 보낸 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에게는 그 시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작품은 밀레니엄을 앞둔 인류에게 주어진 일종의 묵시reveal적 성향을 지닌 연극입니다. 묵시란, '베일에 감춰진 것이 들춰진다'라는 의미로 신이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미래, 과거 또는 오늘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의 시간은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일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동안, 태초의 인간부터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감각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의 베일을 하나씩 들춰내는 '묵시'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작가가 유대인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지닌 성서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석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렇게 성경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풀어보다 보니 이 범위가 모세오경에서 예언서로, 또 신약성서로 점점 확장되는 거에요. 고대에 쓰여진 모세오경만으로는 현대사회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대본 곳곳에서 신약성서에 기초한 부분을 발견하며, 이 작가가 단순히 유대인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와 몰몬 등 섞일 수 없는 모든 이들을 담아 내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대인의 이동 경로, 그들의 역사와 투쟁을 기반으로 인류사 전체의 이야기, 즉,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제게 신비한 체험이기도 했어요. 이 작품은 성서라는 완벽한 턴테이블 위에 1980년대의 미국의 시대 상황을, 〈엔젤스 인 아메리카〉라는 LP판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그 연주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작품은 인간의 이야기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유대적 사고에 의하면 보이지는

"태초의 인간부터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감각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의 베일을 하나씩 들춰내는 '묵시'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않지만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던, 존재하는, 존재할 것이라 일컬어지는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내야만, 밀레니엄을 앞두고 고통 받는 인간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 이라는 유대 랍비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란, 하늘과 땅이 서로 얽혀 짜내는 매듭이다." 보통의 작품은 땅, 즉 인간의 세계만 알면 되지만, 우리는 하늘, 즉 창조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성서는 그 공부를 위한 유일한 책이었고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Jacob Wrestling with the Angel』(1855)
귀스타브 도레Gustave Doré

이 작품에는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의 삶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현재 국가의 명칭이기도 한 '이스라엘' 은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얻게 된 새 이름으로, 여기서 '엘'은 '신', '이스라'는 '겨루어 이기다'로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인데, 얼핏 들으면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고난을 보면 단번에 느낄 수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신에게 질문하고 또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론,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이론입니다. 신약성서를 보면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인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얻고자 하는 바를 어디서 누구에게 얻어내는가 이며, 이 모든 것이 각각의 기도의 형태라고 봅니다.

이 작품의 모든 인물들은 어쩌면 모두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조가 몰몬의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루이스가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괴로워하는 것, 한나가 몰몬의 땅에서 뉴욕으로 이주해 오는 험난한 과정, 벨리즈의 삶 전체 또한 '이스라엘'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전체 얼개가 성서에 기반하고는 있지만 동성애를 둘러싼 인물들간의 갈등의 양상이 작품의 주요 모티브이고, 그 안에서 인종과 종교, 여성의 문제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연출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동성애의 문제 역시 종교라는 큰 해석의 틀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성서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이 이 작품의 상징과 은유를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 이 작품은 1980년대 당시의 미국사회를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성경적인 상징과 은유들이 다 담겨있

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상징이 종교적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비유는 삶과 밀착된 것이 되어야겠죠. 예수님도 어렵고 폼 나는 장황하고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씨앗'이나, '돈을 빌리고 꾸는 자들의 관계'같은 쉬운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를 설명하곤 했죠. 상징과 은유는 그런 익숙함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분열이 초래된 이 시대의 한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또한 특정 시대와 국가의 색이 강한 번역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극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들보다 내면의 죄의식, 양심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정 시대와 국가의 색이 강한 번역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극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게 다루는 이야기가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이러니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이 작품이 이슈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동성애자이자 에이즈에 걸린 프라이어가 예언자로 선택된 것의 의미를 묻게 되더군요.

▸▸ 성서에는 물론 동성애를 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성애만을 지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핵심은 쾌락을 중심

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로 오면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행위가 아닌 그 마음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더욱 엄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가 이 엄격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을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해서 기득권층의 미움을 샀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1980년대 중반의 미국사회에 있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 자들은 에이즈 환자들이었어요.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프라이어가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성경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연하자면 예수님은 전통을 존중했지만 전통적인 언어 속에 갇힌 전통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정하다고 규정된 이들과 기꺼이 접촉하며, 율법이 세워 놓은 장벽 너머의 사람들과 즐겁게 만났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옛 법도나 관습만 지키려는 태도는 고루할 뿐입니다. 물론 새것이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습관의 폭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늘 바라보던 방식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낯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럴 때라야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루이스와 벨리즈의 긴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억압에도 층위가 있고 피억압자 사이에서도 일종의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성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한 어떤 장벽에 막혀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흥미로웠고요.

▸▸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사고들의 대부분은 결국 장벽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한 해결 불가능할 것만 같은 문제들이 결국은 사랑의 정의에 도달합니다. 절대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미국사회의 다양한 인간들이 과연 어떻게 어우러져 조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것도 바로 이 작품의 핵심이죠. 저는 '화이부동과 동이불화'라는 단어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어요. 논어論語의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히면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하지는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의견에 동하고 무리를 짓지만 화합하지는 않는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이룩해내야 하는 모습이고, 밀레니엄을 지나는 인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극과 같은 공동체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요.

줄거리 Synopsis

보수주의와 에이즈 공포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던 1985년 뉴욕. 낯선 미국 땅으로 이주해 가족을 일군 유대인 여인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루이스는 동성 연인 프라이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한편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는 '악마의 변호사' 로이 콘에게 워싱턴 D.C. 법무부 일을 제안받지만, 아내 하퍼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병세가 악화되는 연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루이스는 프라이어를 떠나고, 환청인지 환상인지 모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프라이어 앞에 나타난다.

New York in 1985 is pervaded with conservatism and the fear of AIDS spreading across the United States. The play begins with the funeral of an elderly Jewish woman, who immigrated to the States and built a community for her family. Her grandson, Louis, is shocked to learn that his lover Prior has AIDS. Joe, a clerk in a judge's office is offered a position in the Justice Department in Washington, D.C., by the devilish lawyer Roy Cohn, but finds it difficult to persuade his wife Harper to move. Frightened by the sight of his lover's deteriorating conditions, Louis leaves Prior, and Prior begins to hear an angelic voice and receives visits from apparitions.

인물관계도

천사

프라이어I

프라이어II

에밀리

담당 간호사

프라이어

와스프■

에이즈 환자/ 전 드랙퀸

로이

성공한 변호사

정치계 유력인사

에델 로젠버그

마틴 헬러

친구

연인

친구

루이스

유대인

미국 연방 제2 항소법원

말단 사무직원

?

조

몰몬교도

미국 연방 제2 항소법원

수석 서기관

부부

하퍼

몰몬교도

발륨 중독자

친구

친구

모자관계

벨리즈

흑인

간호사

전 드랙퀸

한나

몰몬교도

미스터 라이즈

국제여행장려협회

직원

그 외 인물들

공원남자_루이스가 공원에서 만나는 신원미상의 남자

헨리_로이의 주치의

엘라 챕터 자매_솔트레이크 시티의 부동산 직원

■와스프WASP

프라이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와스프White Anglo-Saxon Protestant 가문 출신이다.
초창기 신대륙을 밟아 미국의 기반을 다진 '백인/영국계/개신교도'를 의미한다.
미국 전통 기득권 세력의 대명사는 와스프로 통칭된다.

박지일 Park Ji-il

로이 마커스 콘, 프라이어II Roy Marcus Cohn and PriorII

연극

〈오펀스〉 19,17 | 해롤드 | 아트원씨어터 1관 외
〈크리스천스〉 18 | 폴(목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사회의 기둥들〉 14 | 카르스텐 베르니크 | LG아트센터
〈대학살의 신〉 10 | 알랭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도살장의 시간〉 09 | 천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안화차〉 03 | 상곤 | 정미소 소극장 외
〈보이체크〉 03 | 보이체크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슬픔의 노래〉 96 | 박운형 | 문예회관 소극장 외
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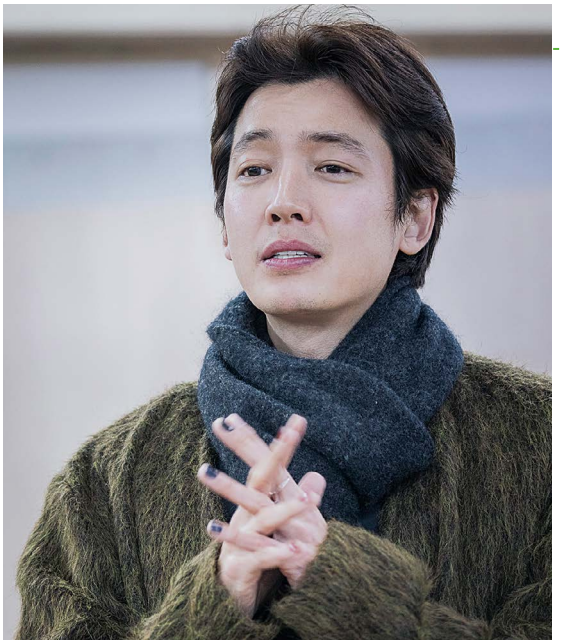
2004 동아연극상 남자 연기상
2002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1996 서울연극제 연기상
1993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외

전국향 Jeon Guk-hyang

한나 포터 피트, 랍비 이시도어 헤멜위츠, 헨리, 에델 로젠베그
Hannah Potter Pitt, Rabbi Isidor Chemelwitz, Henry and Ethel Rosenberg

연극

〈빈센트 리버〉 21 | 아니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조치원 새가 이르는 곳〉 21 | 엄마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화전가〉 20 | 권씨 | 명동예술극장
〈알리바이 연대기〉 19 | 어머니 외 | 명동예술극장
〈율구〉 19 | 노파 |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단편소설집〉 19 | 루스 스타이너 | 대학로 SH아트홀
〈인형의 집, Part2〉 19 | 앤 마리 | LG아트센터
〈이카이노의 눈〉 19 | 큰어머니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신의 아그네스〉 18 | 원장수녀 | 동양예술극장 2관
〈애도하는 사람〉 18 | 사카츠키 준코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여도〉 18 | 정희왕후 | 한전아트센터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명자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정경호 Jung ky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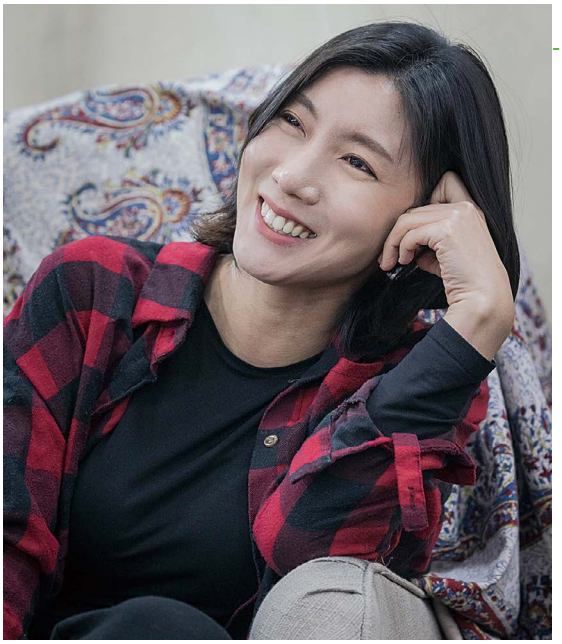
프라이어 월터, 공원남자 Prior Walter and A Man in the Park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1 | 김준완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20 | 김준완 |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19 | 하립/서동천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17-18 | 이준호 | tvN
〈미씽나인〉 17 | 서준오 | MBC
〈한번 더 해피엔딩〉 16 | 송수혁 | MBC
외

영화

〈대무가: 한과 흥〉 〈그리울 련〉 〈맨홀〉 〈롤러코스터〉 〈거북이 달린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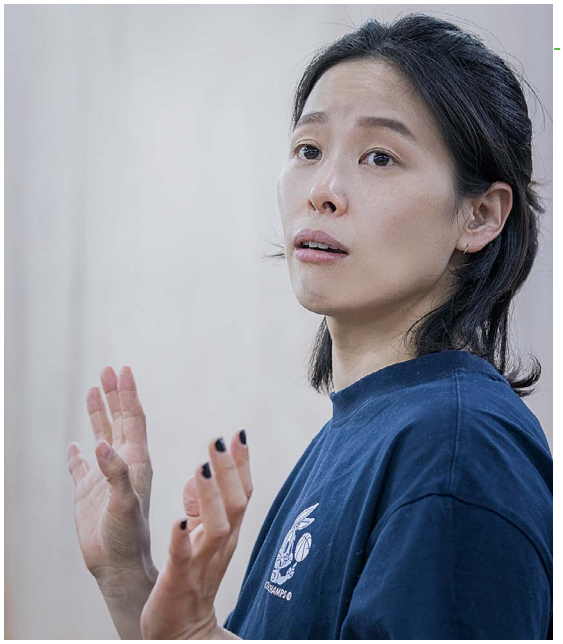


김보나 Kim Bo-na

하퍼 아마티 피트, 마틴 헬러 Harper Amaty Pitt and Martin Heller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미자 | 백성희장민호극장
〈파우스트 엔딩〉 21 | 헬레나 외 | 명동예술극장
〈햄릿〉 20 | 호레이쇼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동양극장 2020〉 20 | 윤정옥 | 백성희장민호극장(온라인극장)
〈댓글부대〉 19 외 | 임소진 | 동양예술극장 외
〈햄릿-디 액터〉 19 | 사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카르멘〉19 | 카르멘 | 정동 세실극장
〈응, 잘가〉 19 | 종삼 | 여행자극장 외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17 | 조성원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소〉 17 | 동이엄마 |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누수공사〉 17 | 옛애인 | 소극장 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3 | 윤보나 | 혜화동1번지
외



권은혜 Kwon Eun-hye

천사, 목소리, 에밀리, 엘라 챕터 자매, 노숙자 여인
The Angel, The Voice, Emily, Sister Ella Chapter and Homeless Woman

연극

〈파우스트 엔딩〉 21 | 마르테·호문쿨루스·걸인·들개 | 명동예술극장
〈스카팽〉 20 | 아르강뜨·네린느 | 명동예술극장 외
〈불꽃놀이〉 20 | 세영 | 소극장 판
〈안티고네〉 19 | 이스메네 | 강동아트센터
〈레드 올랜더스〉 19 | 앙사블 |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7번국도〉 19 | 용선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드라곤 킹〉 19, 18 | 연기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더 정글북〉 18, 17, 16 | 모글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원이엄마〉 18, 16, 15 | 몽태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외
〈로미오와 줄리엣〉 18 | 벤볼리오 | 강동아트센터 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18, 14 | 고양이 외 | 산울림 소극장 외
〈미녀와 야수〉 17 | 원숭이 집사 | 강동아트센터 외
외

정환 Jeong Hwan

조셉 포터 피트, 프라이어I, 에스키모 Joseph Potter Pitt, PriorI and Eskimo

연극

〈와이프〉 20,19 | 에릭, 카스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외
〈이카이노의 눈〉 20 | 노리히로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언체인〉 17 | 싱어 | 콘텐츠 그라운드
〈잔치〉 16 | 케빈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갈매기〉 13 | 뜨레플레프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외

뮤지컬

〈원스〉

영화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외

드라마

〈모범형사〉 〈안녕 드라큘라〉 〈뫼비우스:검은태양〉 외

김세환 Kim Se-hwan

루이스 아이언슨 Louis Ironson

연극

〈SWEAT 스웨트〉 21 | 오스카 | 명동예술극장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서양화 전공 C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파우스트 엔딩〉 21 | 바그너 외 | 명동예술극장
〈여름이 지나갈 때〉 20 | 민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버닝필드〉 20 | 진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스푸트니크〉 20,19 | 남자2 | 서강대메리홀 소극장
〈자본〉 19,18 | 세환 | 연우소극장 외
〈록앤롤〉 18 | 스티븐 외 | 명동예술극장
〈향수〉 18 | 아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4Four〉 18,17 | R | 아트원씨어터 3관 외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17,16 | 윤관석 외 | 연우소극장 외
〈잔치〉 16 | 진욱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박용우 Park Yong-u

벨리즈, 미스터 라이즈 Belize and Mr. Lies

연극

〈SWEAT 스웨트〉 21 | 제이슨 | 명동예술극장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오감독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잘자라랄라〉 19 | 2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8,13 | 박용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18 | 재림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그들의 적〉 17 | 사카모토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개인의 책임〉 17 | 기창 | 복합문화공간 연희정원
〈세일즈맨의 죽음〉 17,16 | 해피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한여름밤의 꿈_부산 밤바다〉 15 | 용우 | 스튜디오76
〈외계인들〉 15 | 재스퍼 | 소극장 판
〈타조소년들〉 16,14 | 블레이크 | 소극장 판
외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허순자 연극평론가

■이하 〈엔젤스〉로 표기한다.

■■국립극단에서는 '토니 커쉬너'라는 표기를 채택하였으나, 본 원고에서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토니 쿠쉬너'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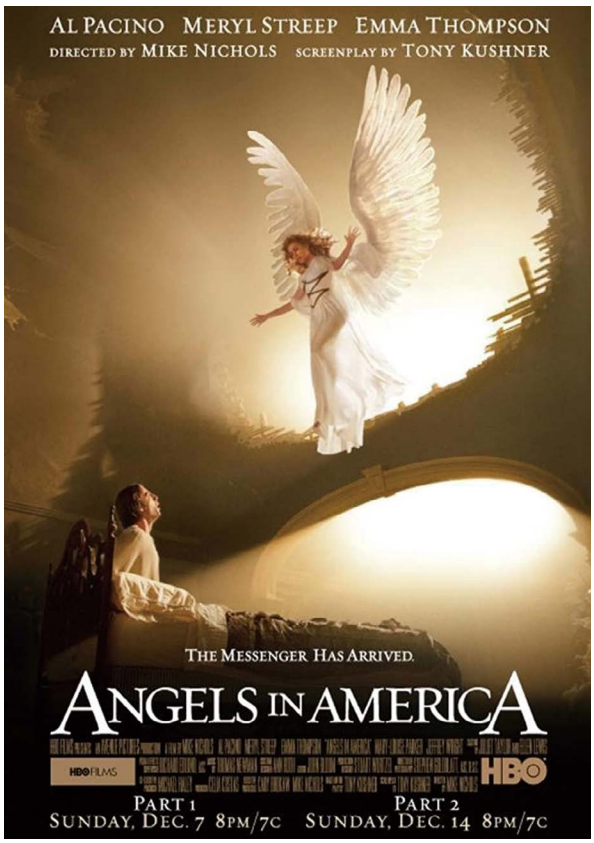
"미국 연극의 얼굴과 스케일을 한꺼번에 바꿔놓은 작품"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20세기 후반 최고의 희곡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엔젤스 인 아메리카〉■(1991)는 토니 쿠쉬너■■의 수작이다. 1992년 영국 국립극장NT 제작으로 로렌스 올리비에 연극상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이듬해 브로드웨이 공연 개막에 앞서 퓰리처상,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뉴욕비평가상 등의 최우수드라마상들을 석권한 〈엔젤스〉의 예외는 현대 연극사의 수정을 요구하는 쾌거였다. 신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지적 성향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오랜 전통의 《뉴욕 타임즈》 북 리뷰에 희곡이 전격 소개된 것이다. 이어 해롤드 블룸의 『서구의 정전』에 필수 문학 목록의 반열에도 오르는 영예의 월계관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연극을 넘어 동시대 미국 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지평을 확대하며 남다른 영향력을 검증해온 〈엔젤스〉는 작가 자신에게도 '대표작magnum opus'으로 각인된다. 그가 사려 깊은 통찰로 안내하는 특정 시대와 문화권의 풍토적 병폐, 죄의식으로 얼룩진 기억의 공간으로 초대받은 관객에게 〈엔젤스〉는 투명한 성찰과 감동, 사유의 시간을 약속한다.

작가가 1988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희곡은 우선 그것의 예외적인 규모로 관객을 압도한다. 텍스트의 큰 '몸통'을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와 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로 나눠 독자적 완결성을 지니게 한 것이다. 이들은 총 8개의 막과 에필로그로 방대한 서사적 구조 하에 각기 수십 개의 장면들(단속적이거나 오버랩으로 중층을 형성하는 '분할 장면들split scenes'이 부지런히 교차하는)로 총합을 이룬다. 도합 7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은 그야말로 고전 대하드라마를 상회하는 길이이다. 그러한 규모에 반격을 가하는 미니멀리즘 미학의 원리를 제작의 핵심으로 제시한 작품은 최소한의 장치와 빠른 장면 전환을 전제로 '절대 암전 불가'를 천명한다. 한편, '국가적 주제에 대한 게이 판타지아A Gay Fantasia on National Themes'라는 부제로 관객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거대 서사는 매직리얼리즘을 방불케 하는 전복적이요, '발칙한' 상상력으로 관극을 충동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죽어가는 자(로이 콘)를 통해 이제껏 자신의 방식대로 역사를 조종해왔음을 근거로, 종말의 순간에조차 불멸을 호언케 한다. 바로 작가 특

영국 국립극장 NT Live 〈엔젤스 인 아메리카〉 포스터

유의 냉소이자 연극적 재치이다. 또한 그의 정치적 음모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에델 로젠버그)의 유령을 불러내 둘을 마주하게 한 건 예의 극적 아이러니요, 극장주의의 발동이다. 말미에 던진 "머잖아 역사는 크게 부서지고 말 것이다. 밀레니엄이 다가온다"는 유령의 경고는 이 극의 또 다른 이들에게는 위로요, 희망이 될 것이다. 바로 암울한 시대적 증세를 온몸으로 요약해 주는 이 극의 집단적 주인공인 일단의 성소수자들이요,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상호 연결되는 주변인들이다.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억은 역사의 시작"임을 확신하는 작가를 통해 연극으로 환기된 역사에의 인식을 공유하는 관객의 몫이 된다.

이처럼 20세기 미국 정치사의 흑막 속 실존 인물들을 소환해 재창조한 이들을 특유의 시적 알레고리의 한 축으로 활용한 극은 무대 위의 관습적 범계를 넘어 천상으로 확장되는 연극 우주를 펼친다. 여기서 작가가 이른 '판타지아'의 장르적 이점은 에이즈로 인한 고통과 배신, 소외에 시달리는 동성애자 프라이어 앞에 돌연 천장을 뚫고 나타나는 천사를 등장시키는 불세출의 스펙터클로 재생된다. 경악하는 프라이어에게 이는 "완전 스티븐 스필버그"요, 관객에겐 그의 환상의 도가니에 적극 동참하는 기회가 된다. 커다란 은회색 날개를 퍼덕이며 환자의 침대 위를 떠도는 천사는 예언자의 출현을 알리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절망의 시대와 충돌하며, 동성애혐오증에 분노하는 저항적 사고의



HBO TV 미니시리즈 〈엔젤스 인 아메리카〉 포스터

전모를 노정露呈하는 작품은 또한 스스로를 '대중적인 작가'로 이르는 쿠쉬너 극의 재미를, 그 충격을 놓칠 수 없다. 한편, 예의 비선형 구조로 짝을 이루는 파트 투는 파트 원의 어두운 극적 맥락을 희극적 톤으로 보완해준다. 스포일러를 경계하는 이 글에서는 종장에서 밀레니엄을 맞은 인물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함을, 모두에게 용서와 화합을, '충만한 삶'에의 축복을 기림만을 전언한다.

"이 작품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한 이는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냉전기 매카시 상원의원의 오른 팔로 '레드베이팅'의 주역이었으며, 레이건 행정부의 막후 실력자로 군림했던 권모술수의 변호사 로이 콘(또한 그가 한 때 트럼프의 변호사이기도 했음을 상기하는 건 진정 작가의 예지 아니련가)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론 리브만이다. 민주적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용광로 대신 샐러드볼의 타자성이 만연하는 미 자본주의의 수직적 경제/사회 시스템은 그 중추적 배경이다. 이에 소수자/약자에 대한 성적·인종적·종교적 편견과 차별이 초래한 미국 문화의 문제적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희생을 목격하게 된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국가적 오류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통찰이 중심을 이룬다. 정치적 부패와 불감증, 극우적 사고의 난기류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고통과 절실한 소망에 대한 작가의 반응인 것이다. 그 자신 유대계 커밍아웃 작가로서의 이중적 정체성과 고통스러운 개인적 체험이 파노라믹 예술 충동으로 현현한 진보적 지성의 뉘앙스는 새롭고도 예리하다.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임을 주지하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역사에 대한 감각 없이 정치적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그 발판으로 삼는다.

작가는 직·간접으로 절묘하게 연결되는 5인의 동성애자들을 작품의 중심에 배치해 그들의 사적 서사의 공간에 복합적인 현실의 모순들을 절묘히 겹쳐낸다. 누군가는 기혼자로 뒤늦게 인식하게 된 성 정체성으로 인해 파경에 직면하고, 다른 이는 에이즈로 죽어가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호도하는 위선을, 또 다른 누군가는 에이즈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를 배신하고 떠난 이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의리로 빛나는 엑스 드랙퀸 간호사 등, 모든 인물들은 그 긴박한 시대의 맥박이 느껴지는 이들이다. 무엇보다 백미는 작가가 그 누구도 완전무결한 인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히 마키아벨리적이요, 현대판 리처드 3세와 비견될만한 사악한 변호사에게 마저 흥미로운 극적 활기를 제공하며, 또한 작가가 지지하는 그 반대편의 인물들에게서도 결함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는 극은 공감대 확장에 주효한다.

쿠쉬너는 자국의 풍요로운 극작 전통의 토양, 즉 오닐, 윌리엄즈, 밀러로부터의 유산을 받은 행운의 작가다. 특히 그가 데이비드 사브란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윌리엄즈를 동성애적 성향의 "일종의 캠프 서사극의 창조자"로 지목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한바 시적 리얼리즘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리라. 비록 그가 자신의 캠프 극작을 '매력적인 연극Theatre of Fabulous'로 차별화 하더라도 말이다. 쿠쉬너는 70년대 중·후반 대학 시절을 보낸 뉴욕시의 다양한 급진적 학생 운동에 가담하는 한편, 혁신적 실험 작업의 최전선에 포진해 있던 리처드 포먼, 엘리자베스 르콤트, 조앤 아칼라이티스, 찰스 러들램 같은 오프-오프브로드웨이 연출가들의 공연에 심취하곤 했다. 그들로부터 받은 현장의 영감 또한 〈엔젤스〉 창작과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연극 안으로부터의 영향들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의 드라마트루기 에센스를 배양한 틀과 토대는 브레히트였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쿠쉬너는 동시대 극작가들 가운데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작가로 캐릴 처칠을 꼽으며, 그가 NT의 〈밀레니엄〉을 보러왔을 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당황했던가를 고백한 적이 있다. 아니, 어쩌면 이들에 앞서 "규모에 있어 셰익스피어적이요, 도덕적 복합성에 있어 도스토옙스키적"인 특징을 지닌 〈엔젤스〉는 그 이전의 정전들로부터 영감의 세례를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 지구촌 연극 선배들의 심오하고도 선한 영향이 〈엔젤스〉의 모태요, 길라잡이가 되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천은 바로 쿠쉬너 자신이요, 또한 그가 고백하듯, 그것을 요구한 특별한 시대는 창작의 행운이었다.

"사고가 없는 연극은 지루하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에 살을 입힐 때까지 모든 사고는 죽어있다. 〈엔젤스〉는 바로 그런 사고들로 넘치는 작품이다"라고 말한 이는 무려 1년이 넘는 파트 원의 장기공연으로 먼저 축배를 들어준 NT 제작의 연출가 데클란 도넬란이다. 지난 30년 동서 연극의 다양한 창조적 해석들로, 때로는 알파치노, 메릴 스트립, 엠마 톰슨 등이 출연하는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HBO 케이블 영화(2003)로, 혹은 파리 샤틀레극장의 오페라 버전(2004)으로 무한히 변신해온 〈엔젤스〉는 이제 우리 국립극단의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려 한다. 90년대 후반 다소 이질적인 제목으로 선 보인 적이 있으나 본격적인 공연으로서의 국내 초연일 새로운 〈엔젤스〉의 긴 행진이다.

1980년대 미국, 에이즈 위기

고강일 _____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문과 조교수

1980년대 미국사회를 강타한 에이즈 위기AIDS Crisis는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의학적 이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사회 내의 퀴어 공동체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갔던 이 미증유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재 의의, 공권력과 국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연대의 중요성 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이다. 무능한 공권력, 무책임한 언론,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폐해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비극적 사건은 미국의 역사에서 여전히 가장 참담했던 시기로 기억된다.

1981년 6월 5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다섯 건의 기이한 폐렴 사례를 보고했다. 약 한 달 후, 7월 3일 《뉴욕 타임즈》는 41명의 동성애자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발현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해 12월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성애자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한다. 그리고 오늘날, '후천성 면역 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이라 불리게 되는 이 질병으로 인해 1981년에만 총 1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동성애자 암Gay Cancer'으로 불리었던 이 괴이하고 공포스러운 질병은 1983년에 이르러서야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의해 유발된다는 사실이 규명된다. 1985년까지는 이 질병의 발병 여부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부재하였다.

에이즈의 초기 대응이 실패한 데에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와 주류 언론의 무관심과 방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선 1981년 LA에서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이후, 1987년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재임 중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이 질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행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으며 에이즈의 예방이나 확산의 방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했다. 이 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은 "범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주류 미디어의 행태도 다를 바 없었다. 당시 《뉴욕 타임즈》를 위시한 메이저 언론은 이 위기의 본질에

©Mark Reinstein

1992년 10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주변에서 ACT UP 회원과 시민들이 부시 행정부의 에이즈 연구 자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 성찰 없이, 에이즈를 일부 문란한 게이 남성들의 역병으로 치부하였으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원과 혐오의 감정을 키우는 데 일조하였다. 에이즈 위기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동성애 혐오와 결합한 국가권력의 비윤리성을 견제해야 할 미디어는 오히려 에이즈 위기를 방조하고 조장하였다. 국가권력, 주류 언론 등의 이 같은 처사는 1980년대 초 에이즈 위기가 닥쳤을 때 초기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만다.

1981년에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를 이념적으로 추동한 세력들 중 하나가 보수적인 기독교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른바 '가족의 가치family values'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하였다. 현실 정치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동성애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미국 사회 내에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자, 정치적 논쟁의 전선을 동성애 이슈로 옮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80년대 발생한 에이즈 위기는 자신들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로 여겨졌다. 에이즈가 미국 사회 내의 게이 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이들은 이를 신의 응징이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동성애자들이나 에이즈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상당수의 유대교나 몰몬교 신자들도 공유하는 바였다. 일례로 1986년 몰몬교 교단의 대변인은 동성애를 불륜이나 혼전 섹스에 버금가는 죄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한다.

1980년대 에이즈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종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1980년대 초, 에이즈 위기가 본격화될 때, 미국 대중들에게 에이즈는 "백인 게이의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에이즈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체로 백인 게이

들이 많았고, 그들이 주로 에이즈 사태의 시급함과 정부의 부당한 처우를 언론에 알리는 스피커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들 공동체 내에서도 인종주의는 만연했고, 이는 에이즈 사태 초기 그들의 이중적 차별, 즉 동성애 혐오와 인종주의에 의해 동시에 박해받는 그들의 처지가 언론이나 여론의 시선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하지만 흑인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미국 전 인구의 불과 6%를 차지하던 1980년대 미국에서, 그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23%를 차지했다는 통계는 뜻하는 바가 크다. 즉 기왕의 인종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동성애 혐오가 만연했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낮았던 상당수의 흑인 게이 남성들이 에이즈에 대한 적절한 정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미국의 에이즈 위기 속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당대 할리우드 유명 배우 중 한 명이었던 록 허드슨Rock Hudson이다. 이 스타 배우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대중에게 알려진 시기가 1985년인데, 이 해는 미국에서 에이즈의 사회사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1985년 이전에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허드슨의 충격적인 에이즈 스캔들은 이 전례 없는 질병이 게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물론 1955년에 한 타블로이드지에서 그의 동성애 성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었던 점이 있었던 만큼 허드슨의 발병 역시 결과적으로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편견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이 폭로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중들에게 허드슨의 이미지는 사뭇 달랐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동시대의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브란도와는 달리 가정적이고 반듯한 모범적인 남성의 표상 같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1985년의 폭로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985년대를 기점으로 에이즈는 게이 남성들만의 역병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 주류 언론, 기성 종교 등에 의해 배척당하던 에이즈 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에이즈 치료제의 개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저항도 없지는 않았다. 에이즈 사태 초기부터 게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비극적 사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있었다. 그들은 감염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요양과 치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연좌시위 등을 통해 에이즈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1987년에 결성된 액트 업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ACT UP은 이 같은 에이즈 권익운동의 성과를 하나의 단체로 집결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 단체는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행정부에 에이즈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의 확대나 에이즈 치료제 조기 승인 등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액트 업의 활동은 후에 유방암 환자를 위한 권익운동에도 영감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민운동의 실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결국 1980년대 에이즈 위기는 당대 미국 사회의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응전이 집약된 역사적 사례라 할 만하다.

'토니 커쉬너'와 그의 작품세계

윤정용 평론가, 고려대 글로벌학부 초빙교수

토니 커쉬너(1956–)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휘자이자 클라리넷 연주자였고 어머니는 바순 연주자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로 이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뉴올리언스 필하모닉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계속하지만, 뉴욕 시티 오페라단에서 바순 연주자로 예술성을 뽐냈던 그의 어머니는 음악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음악 활동 대신 지역 극장의 연극 무대에 자주 섰다. 커쉬너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1949)에서 린다 역을 멋지게 소화한 어머니에게 매료되어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학을 좋아하던 그의 아버지는 커쉬너가 문학적 토양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즉 커쉬너의 부모님은 그가 연극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꽃을 피우는데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들은 커쉬너에게 문화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세례를 베풀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커쉬너가 극작가로서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커쉬너는 동성애자다. 그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인지했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감추기 위해 남들 앞에서 일부러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격적인 토론 능력을 과시했고 페미니즘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받아들였고, 가족에게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 커쉬너는 동성애자임을 선언한 이후부터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에 공개적이었으며 게이 인권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커쉬너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셰익스피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수업은 그를 연극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커쉬너는 이 수업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모든 것이 패러독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패러독스로 점철된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연극 무대에 이끌린다. 이후 모순과 갈등 속으로 관객을 밀어 넣은 후 관객에게 비판적 사고를 요청하는 브레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매료된다.

©Joan Marcus

토니 커쉬너 Tony Kushner

수상내역

2013 제65회 미국 작가 조합상 파울 셀빈상

제47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각본상

제18회 크리틱스 초이스 각색상

2012 제25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각색상

제77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 각본상

2005 캔자스 비평가 협회상 각본상

2004 제56회 에미상 영화 드라마 미니시리즈부문 작가상

대학 시절 커쉬너는 벤 존슨의 〈바돌로뮤 시장〉(1614)을 연출하면서 뉴올리언스 출신의 킴벌리 플린과 우정을 쌓게 된다. 그는 플린의 영향으로 자신의 연극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발터 벤야민,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테오도어 아도르노 등의 독일 사회주의 이론을 섭렵하게 된다. 커쉬너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투(1992)를 헌사할 정도로 플린은 그의 극작 경력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커쉬너와 플린 간의 우정과 지적 교류의 산물이다.

커쉬너는 〈암살자의 시대〉(1982)를 발표하며 극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의 작품 세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괴테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고, 어린이극을 쓰기도 했다. 17세기 영국의 의사이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작품을 남긴 저술가이기도 한 브라운 박사의 전기를 극화한 〈호장론 또는 브라운 박사의 죽음〉(1987)을 발표하기도 했다. 〈데이라 불리는 밝은 방〉(1985)에서 1930년대 독일 나치 시대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시대를 유비한다. 뮤지컬 〈캐롤라인 혹은 변화〉(2002)에서는 1960년대 루이지애나주를 배경으로 유대인 소년과 시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개인적 상실과 변화를 다루고 있다. 커쉬너는 '국가 예술 기금'을 포함해 수많은 연극상과 연구비를 받으며 극작가로서 명성을 쌓았고 〈엔젤스 인 아메리카〉로 199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다. 그의 작품들은 상황에 의해 주변화된 힘없는 인물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변증법적인 역사적 진보를 모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초기작에서 다루어졌던 극의 주제들은 이후의 작품들에서 보다 발전되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커쉬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극작가는 역시 서사극의 창시자인 브레히트다. 커쉬너는 브레히트 서사극 이론과 브레히트에게 영향을 끼친 마르크스 이론을 섭렵한 뒤 연극을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연극을 통해 진보와 변화의 사상을 역설했다. 그의 진보적 사상은 브레히트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발터 벤야민과 에른스트 피셔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책을 읽으며 형성되었다. 커쉬너는 특히 '예술의 마술성'을 강조한 피셔에게 깊이 공감했다. 그는 리얼리즘을 거부하는 브레히트의 에피소드적 서사극에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마술적 방식을 찾았다.

브레히트에 대한 커쉬너의 관심은 벤야민의 에세이 「역사 철학에 대한 의제들」(1940)로 이어졌다. 일찍이 벤야민은 역사적 유물론자의 임무 중 하나를 '역사 바라보고 거스르기'라고 규정했다. 벤야민의 역사관은 커쉬너의 〈엔젤스 인 아메리카〉와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와 사회경제적, 생태적 파괴를 진지하고도 우습게 그려낸 〈슬라브인들!〉(1994)에 잘 드러난다. 커쉬너에게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과거를 통해 조명된다.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하는 〈홈바디/카불〉(2001)의 경우에도 과거로의 회귀는 현재를 진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특히 이 작품은 미국과 그 서구의 우방국들이 급박한 미래에 취할 행동들에 의문을 제기한 이 작품은 9·11테러의 발생을 예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커쉬너는 미국 작가들에게서도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그는 미국 연극의 토대를 닦은 유진 오닐의 연극 세계를 형성하는 양대 기둥, 즉 '개인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극작품에 형상화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선배 극작가는 자신과 같은 남부 출신의 동성애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였다. 윌리엄스의 영향은 커쉬너 극의 감정적 측면, 유머, 시적인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실험 정신과 연극의 마술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윌리엄스의 시적 감수성과 섹슈얼리티 사이의 긴장은 커쉬너의 의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비평가들은 커쉬너를 윌리엄스의 후계자라고 평가했다.

커쉬너는 동성애와 에이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래리 크레이머, 테렌스 맥낼리, 하비 피어스타인 등과 같은 동성애 작가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끼친 영향은 윌리엄스의 모순된 동성애관 및 시적 리얼리즘과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 이전의 동성애 극작가들은 동성애를 작품의 중심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전경화하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국한했다. 하지만 커쉬너는 동성애를 범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주체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들과도 구별된다.

커쉬너는 개인의 불안과 해소되지 못한 섹슈얼리티에 천착한 윌리엄스와는 달리 사회, 정치와 같은 공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에이즈 공포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데도 레이건 정부가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커쉬너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저항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다. 커쉬너의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커쉬너는 예술 또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여겼다. 커쉬너의 이런 점은 밀러의 극작관과 공명한다. 커쉬너는 독일 사회주의 이론가들과 미국 극작가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극작품에 잘 녹여냈다.

커쉬너는 번역과 개작에도 공을 들였다. 프랑스 고전주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이유의 동명의 작품을 개작한 〈환영〉(1988)에서는 삶과 연극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유대인 작가 S. 안스키 원작, 요하킴 뉴그로쉘이 번역한 작품을 개작한 〈몸을 떠난 혼 또는 두 세계 사이에서〉(1997)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신비롭게 다루고 있다.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1941)을 번역하여 무대에 올렸고, 〈사천의 착한 사람〉(1943)을 개작하고 번역했다. 그는 브레히트 작품의 개작과 번역을 통해 "작가는 사회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브레히트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커쉬너가 번역하고 개작한 작품들은 〈엔젤스 인 아메리카〉가 받았던 만큼의 찬사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는 그는 연극보다도 영화 쪽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에릭 로스와 함께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뮌헨〉(2005)의 시나리오를 썼고,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링컨으로 분한 영화 〈링컨〉(2012)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에세이집 「덕목과 행복에 관한 오래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1995), 단막극 〈성경의 열쇠로 건네주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성적 동성애자의 조언〉(2009)을 통해 섹스, 동성애 해방, 사회주의 관련 의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유한다. 각종 인터뷰와 강연에 응하면서 미국의 주변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성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커쉬너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편집장인 일곱 살 연하의 마크 해리스와 공식적인 게이 커플이 되었고, 2008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는 2003년 시카고 컬럼비아대학교, 2008년 뉴욕주립대학교 퍼처스대학, 2011년 뉴욕시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6월에는 백악관으로부터 연극과 영화에 기여한 공으로 예술 분야 국가 훈장을 받았다. "무대를 위한 것이든 은막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의 대본은 유머를 격노, 역사를 환상, 철학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과 결합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관객을 감동시켰다"는 훈장 수여 시 백악관의 짧은 설명은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윤철

〈미국의 천사들: 제1부—새 천년기가 다가온다〉_「동시대 미국희곡 분석—실천적 관습적 읽기」 Vol. 2, 연극과인간, 2004. 127-254.

윤정용

「영화로 문학 읽기 문학으로 세상 보기」 _고두미, 2018.

「〈미국의 천사들〉에 나타난 쿠시너의 정치 철학」 _「동서비교문학저널」 제46호, 2018년 겨울. 263-294.

이희원

「토니 커쉬너, 〈미국의 천사들〉」 _「퓰리처상을 통해 본 현대 미국연극」, 현대영미드라마학회편, 건국대학교출판부, 2014. 45-70.

작품 속 키워드

참고: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위키리스크 http://www.wikileaks-kr.org/
위키피디아 https://www.wikipedia.org/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종교

유대교 / 기독교

성서 기준, 유대교는 예수를 구원자(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구약'만 을 인정하고, 기독교는 구약과 예수 이후의 복음서인 '신약'까지를 인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의미하며 천주교, 개신교, 침례교, 몰몬교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유대교는 613개의 율법으로 종교, 생활적 금기를 세세하게 규정한다.
- 랍비는 유대교의 현인이자 선생과 같은 존재이다.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미국에서 생겨난 기독교계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와 달리 자신들만의 몰몬경을 주요 경전으로 하여 '몰몬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몰몬교도들은 사후에는 다른 계층들이나 왕국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류가 어디서 귀결될지는 이 생애에서 무엇을 믿고 행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믿음과 선행들의 조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생활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 가족관, 낙태, 동성애 등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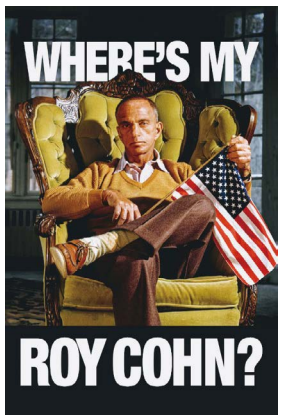
-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 시티 는 극 중 한나 피트가 사는 유타주의 수도로, 몰몬교의 총본산인 템플스퀘어가 위치해있어 몰몬교의종교적 중심지이자 몰몬교도의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물

로이 마커스 콘Roy Marcus Cohn

‘악마의 변호사’로 불리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1950년대부터 사망 이후까지 여러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켰던 실존 인물이다. 마피아 조직과도 밀접한 교류를 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멘토였다는 사실 또한 유명하다. 그는 유대인이자 성소수자였으며 에이즈로 사망했다.

▶ 극 중 인물 로이 콘은 실존 인물의 말년을 바탕으로 하며, 작품에서 그려지는 로이는 실제와 비슷하지만 극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인물이다.



영화 〈로이 콘-악마의 변호사 Where’s my roy cohn〉(2019)의 포스터

로이의 ‘아버지’들

월터 윈첼 Walter Winchell

1920-50년대 사이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가십 칼럼니스트로서 그 악명을 떨쳤다. 1930년대 그는 이런 명성으로 당시 FBI 국장뿐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의 기사 한 줄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는 시대였다.

에드거 후버 Edgar Hoover

1924년에서 72년까지 48년간 FBI 국장으로 근무했다.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실세 정치인의 스캔들은 물론 해외 정치인들의 스캔들까지 확보, 정치적 월권을 휘둘러 '장막 뒤의 대통령'으로 불렸다. 로이 콘은 로젠버그 부부의 재판으로 명성을 얻은 후, 에드거 후버 밑에서 일했다.

조 매카시 Joe McCarthy

조 매카시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매카시즘▪을 만들어낸 냉전 선동가였다. 로이 콘은 에드거 후버에 이어 조 매카시 상원의원에게 법률고문으로 발탁되었다.

▪매카시즘: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반공주의 선풍, 또는 정적이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벌하려는 경향이나 태도를 가리킨다. 195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움직임에 위협을 느끼던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매카시가 행한 선동 정치에서 유래한다.

줄리어스와 에델 로젠버그Julius and Ethel Rosenberg

로젠버그 부부는 소련에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혐위로 1951년 재판을 받았다. 재판 당시 담당 검사였던 로이 콘이 에델의 남동생인 데이비드로부터 자백을 이끌어 내, 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구형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파이 혐의로 민간인을 사형 집행한 사례였다.

줄리어스와 에델 로젠버그 부부

루이스 파라한Louis Farrakhan

흑인 무슬림의 권익을 위한다는 기조 아래 폭력 시위나 무력 행사를 하였고, 반유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급진적이고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흑인 히틀러'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에드 코치Edward Koch

본 작품의 배경인 '1980년대 뉴욕'의 시장으로, 유대인이자 성소수자였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제시 잭슨Jesse Jackson

흑인 목사이자 정치인으로 '무지개 연합'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84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프더레코드라며 "헤미 타운(유대인들이 점령한 뉴욕)"이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엠마 골드만Emma Goldman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마을 출신이라는 점에서, 극 중 루이스의 할머니인 '새라 아이언슨'과 유사한 점이 있다.
아나키스트이자 정치 활동가로, 여성의 인권과 건강 뿐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했다.

레퍼런스

영화

토니 커쉬너는 작품 곳곳에 미국 대중 문화 레퍼런스를 포함시켰다. 아래 대사가 이에 해당한다.

1막 2장

"영화 속 시바 주인 셜리 부스처럼"

▸ 영화 〈돌아오라 사랑하는 시바여Come Back, Little Sheba〉(1952)의 여자 주인공 '로라'(셜리 부스)가 잃어버린 강아지의 이름 '시바'

영화 〈돌아오라 사랑하는 시바여 Come Back, Little Sheba〉(1952)의 셜리 부스

1막 7장

"클로즈업해도 되겠어요, 미스터 드밀"

▸ 영화 〈선셋 대로Sunset Bou-levard〉(1950)의 여자 주인공 '노마 데스몬드'(글로리아 스완슨)의 대사

영화 〈선셋 대로 Sunset Boulevard〉(1950)의 포스터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

또한, 커쉬너는 평소 존경했던 테네시 윌리엄스의 다양한 작품을 본 작품에 인용했다.

2막 5장

프라이어와 벨리즈의 대화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쉬 뒤부아', 〈유리 동물원〉의 '아만다 윙필드'를 오마주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조수현
무대디자이너

이 작품 속에는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심취해 있는 하퍼라는 인물이 있다. 오존층은 외부에서 침투되는 자외선을 일정 부분 차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곳에 구멍이 나버렸으니 지구의 생태계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의 무대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무대는 온실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곳이 보태니컬 가든이라면 여기 있는 식물들은 일정량의 햇빛과 습도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이곳이 신의 영역이라면 여기 있는 인물들 역시 가장 안전한 상태이리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외벽의 구멍과 깨진 천장 때문에 이곳은 일순간 아주 불안정해지고,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삶에 침투하게 될 아주 유해한 것들로부터 언젠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마치 오존층이 파괴된 지구처럼 말이다.

미국에 온 낯선 이방인들. 인간이 본디 가지고 있는 완벽한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인간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에이즈라는 병. 밀레니엄을 앞두고 신이 언제 자신들을 다시 벌할지 모른다는 세기말적 불안감. 이 작품의 무대 역시, 깨지고 구멍이 나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 온실을 컨셉으로 텍스트에 흩뿌려진 의미와 병치시키고자 하였다.

허나 우리는 파멸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멍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직면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에 가장 나약한(동성애자이면서 에이즈 환자이고 연인에게 버림받은) 존재이자 그것이 자기 자신 임을 숨기지 않았던 프라이어만이 신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어쩌면 이 작품의 주제도 깨진 그곳과 맥이 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 가끔은 그 깨진 곳으로부터 엔젤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 '외부로부터'는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원, 2막의 제목이기도 하다.

조수현

주요작품

연극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언체인〉 〈생쥐와 인간〉 외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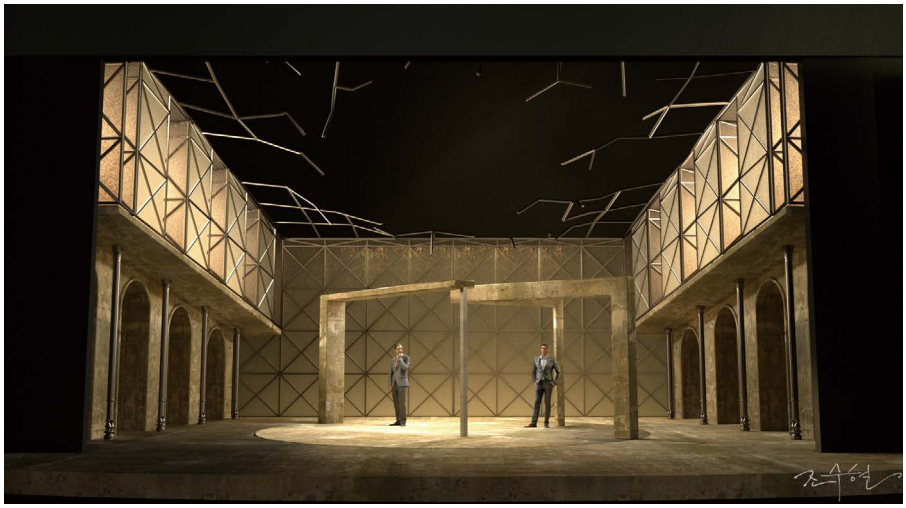
〈히디어 마들렌〉 〈이토록 보통의〉 〈어쩌면 해피엔딩〉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리지〉 〈새벽 세시〉 〈그리스〉 〈칠서〉 〈천사에 관하여-타락천사 편〉 외

무용

〈1828 연경당: 정재의 그릇에 철학을 담다〉 〈리진〉 〈더스트레이지엘〉 외

콘서트

〈디즈니플러스 개막 런칭쇼〉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공연 〈야진연〉 〈꿈의 오케스트라 10th 기념공연〉 외



천국과 우리의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최혜진 소품디자이너

이번 공연에서 '날개'는 천사의 상징을 넘어서 천국과 지구를 연결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가진다.

흰색의 아름다운 깃털이 아닌 물에 젖고 상처받은 날개의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원하지 않게 일상을 빼앗긴 우리의 오늘과도 닮아있다.

천사의 날갯짓으로 멈췄던 시간을 위로하고, 변화할 세상을 연결하는 구조물로써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작, 희망의 의미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

최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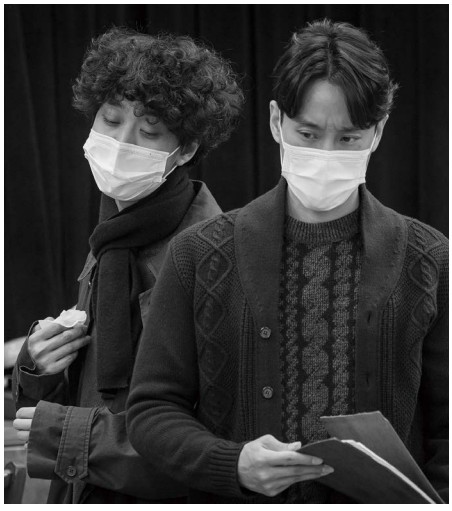
주요작품

연극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와이프〉 〈궁극의 맛〉 〈브라보 엄사장〉 〈나와 아버지와 홍매〉 〈거대한 뿌리〉 〈레드〉 〈대학살의 신〉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햄릿〉 〈엄마를 부탁해〉 〈니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M버터플라이〉 외

뮤지컬

〈비틀쥬스〉 〈고스트〉 〈듀엣〉 〈킹키부츠〉 〈렌트〉 〈레베카〉 〈보디가드〉 〈아이다〉 〈베니스의 상인〉 〈애니〉 〈마틸다〉 〈광화문연가〉 〈모래시계〉 〈햄릿: 얼라이브〉 〈몬테크리스토〉 〈유린타운〉 〈풍월주〉 〈모차르트〉 외



스태프

작—토니 커쉬너 Tony Kushner

프로필 _ 22페이지

연출—신유청 Shin U-chung

프로필 _ 3페이지

번역·조연출—김진숙 Kim Jin-sook

연극 [번역·각색] 〈빈센트 리버〉 〈와이프〉
[협력번역] 〈그을린 사랑〉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조연출] 〈그을린 사랑〉 〈빈센트 리버〉 〈트로이의 여인들〉 〈와이프〉 〈궁극의 맛〉 〈언체인〉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추남, 미녀〉 〈꽃잎〉 외
[출연] 〈Medusa〉 〈I Drink to Thee〉

음악극 [조연출] 〈드라곤킹〉

윤색—윤성호 Yoon Seong-ho

연극 [작]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누수공사〉 〈미인〉 〈해맞이〉 외
[연출] 〈병아리를 갈아만든 피카츄 돈까스〉 〈베드 타운〉 〈차세대 열전 2017 노스체〉 〈나선은하〉 〈외계인들〉 외
[작·연출] 〈죽음의 집〉 〈미인-거기 있던 말들〉 〈해맞이〉 외
[각색·연출] 〈꿈이 아닌 연극〉 외
[윤색] 〈메디아〉 〈미스줄리〉 〈더 파워〉 외

수상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희곡상, 연출상 〈죽음의 집〉
2018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무대—조수현 Cho Su-hyun

프로필 _ 28페이지

조명—강지혜 Kang Ji-hye

연극 〈그을린 사랑〉 〈빈센트 리버〉 〈추락1〉 〈추락2〉 〈와이프〉 〈궁극의 맛〉 〈녹천에는 똥이 많다〉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다〉 〈스테디 레인〉 외

무용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 〈변신〉 외

음악·음향—지미 세르 Jimmy Sert

연극 [음악·음향] 〈그을린 사랑〉 〈와이프〉 〈녹천에는 똥이 많다〉 〈1984〉 〈손님들〉 〈꿈〉 〈엄마 이야기〉 〈세일즈맨의 죽음〉 〈하나코〉 〈베르나르다알바의 집〉 외
[음향] 〈새들의 무덤〉 〈자기 앞의 생〉 〈가족〉 〈단테의 신곡〉 외

의상—홍문기 Hong Mun-ki

연극 〈마우스피스〉 〈파우스트 엔딩〉 〈와이프〉 〈킹스 스피치〉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녹천에는 똥이 많다〉 〈얼굴도둑〉 〈그게 아닌데〉 〈옥상 밭 고추는 왜〉 〈남자충동〉 〈널 위한 날 위한 너〉 〈미친키스〉 〈함익〉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M. butterfly〉 〈다정도 병인 양하여〉 외

뮤지컬 〈해적〉 〈난설〉 〈미아 파밀리아〉 〈세자전〉 〈풍월주〉 〈모래시계〉 〈마리 퀴리〉 〈틱틱붐〉 〈로기수〉 〈아가사〉 외

오페라 〈박하사탕〉 〈베르테르〉 외

소품—최혜진 Choi Hye-jin

프로필 _ 30페이지

분장—정지윤 Jung Ji-youn

연극 〈그을린 사랑〉 〈새들의 무덤〉 〈와이프〉 〈궁극의 맛〉 〈히스토리 보이즈〉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프라이드〉 〈더 헐멧〉 〈벙커 트릴로지〉 외

뮤지컬 〈마리 퀴리〉 〈개와 고양이의 시간〉 〈전설의 리틀 농구단〉 〈최후진술〉 〈명동 로망스〉 〈트레이스 유〉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팬레터〉 〈쓰릴미〉 〈이토록 보통의〉 외

안무—이소영 Lee So-young

연극 〈그을린 사랑〉 〈궁극의 맛〉 〈녹천에는 똥이 많다〉 〈망토〉 〈워킹 홀리데이〉 〈비포 애프터〉 〈고등어〉 〈엘렉트라 파티〉 외

무용 〈늑대백〉 〈밤 11시, 춤추는 것은 먼지〉 〈강을 건너듯 문지방을 넘어〉 외
[출연] 〈빨래〉 외
[컨셉·구성] 〈방랑의 기술〉 〈세계의 경로〉 외

전시 퍼포먼스 [출연] 〈코어〉 외

조연출—오의택 Oh Eui-taek

연극 [조연출] 〈그을린 사랑〉
[구성·연출] 〈인터랙티브 씨어터: 모파상에 대한 고백〉 외
[드라마터그] 〈창조경제_공공극장편〉 〈글로발 프로젝트1_몇가지 만남에 대한 생각〉 〈말들이 돌아오는 시視시始시詩 시간〉 외
[출연] 〈터무늬있는연극×부평〉 〈들개의 기억〉 〈사천의 선인〉 〈서울연습-모델,하우스〉 〈아타미 살인사건〉 외

만드는 사람들

출연

박지일 로이 마커스 콘 외
전국향 한나 포터 피트 외
정경호 프라이어 월터 외
김보나 하퍼 아마티 피트 외
권은혜 천사 외
정환 조셉 포터 피트 외
김세환 루이스 아이언슨
박용우 벨리즈 외

스태프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번역·조연출 김진숙
윤색 윤성호
무대 조수현
조명 강지혜
음악·음향 지미 세르
의상 홍문기
소품 최혜진
분장 정지윤
안무 이소영
조연출 오의택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나혜민
무대제작감독 경은주
조명감독·오퍼레이터 류선영
음향감독·오퍼레이터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문성현 유성엽 장순호 이송인 장수지
플라잉진행 이인국 김진철
의상진행 전요나 김민주
분장진행 김상민 유시은

의상어시스턴트 고수아 이수진 윤여담
소품어시스턴트 민수정 박정경 홍연경 배희정

무대제작 온스테이지_대표 김준성
의상제작 이엘_대표 홍문기
소품·날개제작 더 소품바이진_대표 최혜진
조명장비임차 비토르라이프_대표 임홍민
전식제작 제이컴_대표 전혁
키네틱제작 암스미디어_대표 박수암
회전무대장비임차 시너지이펙트_대표 하동선
플라잉장치임차 Showmotion_대표 이상춘

조명프로그래머 김대희
조명팀장 이재민
조명크루 최진근 이지훈 노명준 김송이 이혜지
손나래 배대두 김태완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영문 자막 제작 박근희
영문 자막 운영 김진숙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최윤영
마케팅 변정원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송이
청년인턴 노소연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WT_대표 이지선
홍보사진 이승희스튜디오_대표 이승희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경환
홍보영상 602 STUDIO_대표 김영준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소향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티켓 김효진
매표안내원 김인혜 김경은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정해룡 임예은 박다연
박선준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고정윤 채지성
김소희 고찬하 정여름 하라영 한현지 김가민
김현오 이호정 김은유

프로그램북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지영림 윤정민
제작진행 박근희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김훈일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정현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송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박지수 이승수 경은주 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 박설아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정한솔 연구개발 |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2021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강현우

〈파우스트 엔딩〉
〈사랑 II〉
[창작공감: 연출]

고애리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권은혜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작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명기

〈X의 비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김보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세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웨트〉

김예림

〈X의 비극〉
〈사랑 II〉
〈만선〉

박용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웨트〉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문예주

〈X의 비극〉
〈SWEAT 스웨트〉
〈로드킬 인 더 씨어터〉

박소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송석근

〈X의 비극〉
〈SWEAT 스웨트〉
〈만선〉

이상홍

〈X의 비극〉
〈만선〉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이원준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이유진

〈X의 비극〉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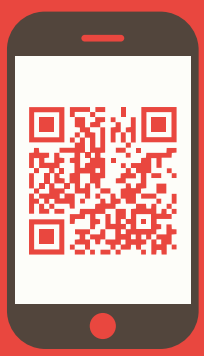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터파크 명동 북앤샵 02-6004-7391

- 도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BISTRO 수방.J 02-3789-8679

- 호텔28 레스토랑 '비스트로 수방J' 10% 할인

오설록 02-774-5460

티하우스 명동점

- 전체 메뉴 10% 할인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휴문의 02-3279-2278 www.ntck.or.kr

SHINSEGAE
DUTY FREE
韩际新世界免税店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강남점 | 인천공항점 | 부산점 | 인터넷면세점 www.ssgdfs.com | 고객안내 콜센터 1661-8778

국립극단의 새로운 극장

온라인 극장

on.ntck.or.kr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머지않아 역사가 부서질 거야.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있어."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